

여수 낭만포차 “안심하고 드세요”



여수시가 전국대표 관광지로 잘 알려진 낭만포차에 찾아오는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안전한 밥상을 제공하기 위해 전 업소가 참여하는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4일 여수낭만포차운영위원회를 열어 낭만포차 운영자 18명을 대상으로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추진배경을 설명하고, 국산김치

전 업소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추진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안심밥상 제공

소비촉진에 전 업소가 앞장서기로 다짐했다.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는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가 100% 국산김치를 사용하고 있는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국산김치를 사용하는 업체를 인증해주고, 소비자가 국산김치 사용 인증 업소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인증마크를 부착해주는 제도다.

시 관계자는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를 통해 수입산 김치에 대한 소비

자불안을 해소하고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김치를 먹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 될 수 있도록 많은 음식점들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9월까지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인증을 830개소 이상 지정한다는 목표로 주요 관광지, 음식점 등을 직접 현장 방문하는 등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인증 참여 확대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여수=오상호기자



광양시의회 산업건설위 집중호우 피해 현장 확인 진상면 탄치마을 주택매몰 현장 등 방문 의정활동 펼쳐

광양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정민기)는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진상면 탄치마을을 최근 방문하여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광양시에는 최근 양일간 평균 282mm의 폭우로 인해 도로·건축물 등 시설물 43건과 농작물 14.4ha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

특히 진상면 탄치마을에서는 산사태로 인하여 주택과 창고 5채가 매몰되고, 현장에서 80대 주민 1명이 숨졌다. 이번 산사태는 마을 뒷편 주택 신축을 위한 공사 부지내 석축 붕괴로 경사지 토사가 주택 등을 덮쳐 발생했다.

의원들은 2020년부터 공사 중에 돌덩어리와 토사가 주택으로 내려와 주민들이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요구하며 시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 부분

대한 행정 조치 사항을 물었다.

또한 시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배수로 설치와 사면 안정성 검토 권고를 건설업자 측에 요구하였으나 업체 측이 법적 규정을 들어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행정에서 대처할 방법은 없는지 질의했다.

정민기 위원장은 “주민들의 안전에 위험이 따른다면 법적 규정을 떠나 최우선으로 안전조치를 이행’을 강조하며 ‘현제 집중호우로 인해 지반이 약해져 있는 상태이고 장마도 지속되고 있으니 제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 ‘더불어 현재 진행중인 전경경찰청 수사 결과를 보고 향후 대책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심종섭기자

보성군, 오봉산 구들장 국제학술대회

내일부터 이틀간 국내외 석학들과 오봉산 구들장 가치 발굴

보성군은 오는 15일, 16일 이틀간 (사)국제온돌학회와 공동주관으로 ‘보성 오봉산 구들장 국가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오봉산 구들장의 문화재적 가치와 토속 건축건축’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15일에는 해외 석학 초청강연과, 오봉산 구들장 현장을 중심으로 연구한 주제발표, 논문 발표가 진행되고 16일에는 오봉산 구들장 현장 및 강골마을 전통한옥 구들장 현장 답사가 예정돼 있다.

국제 온돌학회 회장 김준봉 교수는 ‘오봉산 구들장 채석지의 연혁 및 산업적 특징’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고, 목포대학교 김지민 명예교수는 ‘오봉산 구들장 채석지의 구조 및 특징’을 발표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민수 교수는 ‘오봉산 구들장의 광물학적 특징’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보성군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세계 최대 규모 오봉산 구들장 채취 현장의 학술적·문화적 가치를 조명하고,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오봉산 구들장의 가치를 대외에 공유하며 국가문화유산 등재의 발판으로 삼을 계획

이다. 구들장은 온돌문화와 건축 환경에서 근간이 되는 건축 재료이자 한국생활사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문화적 자원이다.

중국, 미국, 일본 등 총 12명의 관련 전문가들은 온돌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 및 구들장의 암석학적 연구 등의 연구 자료를 발표한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오봉산 구들장 현장은 보성군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근현대 생활상을 고스란히 만나 볼 수 있는 살아있는 역사 현장이며, 무엇보다 당시의 현상이 그대로 보존돼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높다”면서 “오봉산 구들장이 국가문화유산으로 등재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오봉산 구들장 현장 국가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채석 현장에 몸담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진행하여 구술 채록 및 관련 유물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우마차길 정비, 오봉산 권역 구들장 채석 지도 작성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정비하고 있다.

보성=김택수기자

순천기적의도서관, 아이들이 만드는

전시공간 ‘기적을 꿈꾸는 전시실’ 운영



순천시는 기적의도서관에서는 최근 ‘평화주의 운동가이자 자연주의 예술가 훈데르트 바서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기적을 꿈꾸는 전시실’ 수업에 참여한 어린이들의 작품 17점을 전시공간에 전시하고 있다.

‘기적을 꿈꾸는 전시실’은 어린이들의 잠재적인 능력과 생각을 키우는 창의적인 미술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진행되며, 프로그램의 결과물인 어린이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2020년 문을 열었다.

올해 기적을 꿈꾸는 전시실은 ‘교과서에서 나오는 화가들과의 대화’라는 주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서 나온 어린이들의 작품들로 전시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전시는 어린 아이들이 조르주 쇠라와 훈데르트 바서의 작품을 감상하고 자신만의 느낌으로 재해석하여 만든 그림과 조형물로 전시장을 채웠다.

조르주 쇠라의 화법을 응용하여 물감을 붓으로만 그리는 것이 아닌 면봉으로 짝어 점묘화를 완성하였고, 훈데르트 바서 건축을 응용하여 자신만의 정원을 꾸미고 이를 모아 ‘기적을 꿈꾸는 마을’을 완성하였다.

기적을 꿈꾸는 전시실은 순천기적의도서관 1층 부모교육센터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서관 이용 시간 내에 자유롭게 관람이 가능하다. 또한 24시간 운영으로 저녁 6시 이후에는 전시실 밖에서 유리창을 통해 관람이 가능하다.

순천시 기적의도서관 관계자는 “기적을 꿈꾸는 전시실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기자

고흥군, 벼 병충해 긴급방제 지도 나서

이삭도열병·흰잎마름병 방제

고흥군은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5,000ha 침수와 이후 계속되고 있는 고온으로 인한 벼 병해충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이달 16일까지 벼 병해충 긴급방제 지도에 나섰다.

조생종은 출수가 시작되어 이삭도열병 위주로, 중만생종은 침수지역 중심으로 흰잎마름병 방제에 중점을 두고 방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금년 7월 8일 농업기술센터 유아등에서 흰등멸구가 발견됨에 따라 피해 예방을 위해 문자발송, 순회 농가 개별접촉 등을 통해 철저한 예찰과 방제를 당부했다.



아울러, 유수형성기와 이삭발대를 거쳐 출수가까지는 벼의 잎면적이 가장 크고 증산량도 많아져 물이 많이 필요하며 외부환경에 가장 민감한 시기이므로 3일 물대고 2일 물빼는 물걸러대기를 하여 뿌리활력을 높이고 토양 속의 유해물질을 제거함으로써 이삭의 성장과 발육을 순조롭게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약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간격거리를 두어 주세요!